

국민보건안전에 기여하는 공익기업의 책임다하겠다

■ 편집부



기업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뒷받침은 환경문제해결의 열쇠. 이것이 환경관리인들에게 각자의 역량을 십분 발휘 할 수 있는 든든한 힘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비개인 오후의 싱그러움과 본관 건물 앞쪽에 붙어있는 '보람의 일터'라는 글씨가 인상적인 곳, 이달의 현장인 (株)코오롱 성서공장 역시 환경관리업무가 특출한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업체다.

나일론 필라멘트사를 생산하고 있는 이곳의 전신은 '56년도에 설립된 고려나일론. 지난 '83년 코오롱이 인수하면서 곧바로 공장장인 조용장상무를 위원장으로하는 환경관리위원회를 발족시켰다. 환경오염발생원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국민보건상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려는 취지에서였다. 이후 조상무는 생산공정을 환경공학적인 측면으로 재검토, 생산현장을 인간중심적으로 개선하고 위해의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제반

문제점 해결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동 위원회는 방지시설 운영상태의 확인은 물론 매월 1회씩 환경진단활동을 실시, 생산공정별로 문제점을 찾아내 조치하므로서 결과적으로 효율적인 환경업무개선에 많은 성과를 올렸다. 즉 각 담당자들의 일상업무를 통한 점검활동과 환경안전관리실(실장·최길수)의 지속적인 문제점 진단 및 적절한 조치로 BOD부하감소와 폐수처리장의 충격방지에 효과를 거둔 것이다.

또한 위원회에선 환경개선을 위한 제안제도의 추진으로 전사원들에게도 환경보전의식을 고취시켰다.

한편 '73년에 설계시공된 폐수처리장 역시 '83년에 1억 2천만원을 투자해 종전의 화학적 방법에서 생물학적 방법으로 그 처리 공법을 개선했다.

이어 이듬해엔 집수조를 포기조로 개선해 용존산소농도와 폐수처리능력을 증대시켰으며, P/P에 FLOAT V/V를 부착해 자동으로 수위조절이 가능케 했다.

그리고 '85년엔 3천7백만원을 투자, 앞서 얘기한 생산공정별 유입수 부하감소대책을 수립했

다. 그 한 예로서 CHIP세척과 정에서 함유된 원료를 회수해 재투입하는 원료회수공정의 경우, 2중 단순 회수장치를 4중 시스템으로 개선했는데, 이로 인해 95%이상의 원료회수 및 처리장의 BOD부하 감소를 가져와 연간 63백만원을 절감시켰다. 각 공정별로 개선효과를 거둔 사례는 이외에도 많다.

지난해엔 생산공정 오염폐수와 생활폐수의 배관을 분리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89년엔 대구경북지역의 환경관리 우수업체로서 선정돼 환경청이 주관하는 성공사례발표회를 수차례에 걸쳐 갖기도 했다. 더욱이 올해들어에서도 상반기 합동감사 실시 결과 BOD 10ppm으로 이 지역에서 가장 우수한 모범업체임을 입증했다.

현재는 현장부서별로 집수조를 설치해 각기 유입수의 물량과 BOD를 분석하고 있다. 각 현장부서들이 유입수를 최소화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있다는데, 이같은 오염폐수의 발생원인 생산현장과의 긴밀한 연결이야말로 철저한 폐수처리를 가능케하는 원동력이 아닐 수 없다.

일일 150~200m³ 처리하고 있는 폐수처리장으로 들어서는 입구도 보도블럭을 좌우로 두고 장미의 뜰과 잔디로 꾸며져 깔끔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여기선 포기조수온하락을 막기 위해 동절기엔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폐수처리 경비로는 약품비, 전력비, 인건비를 포함해 연간 4천6백70만원정도가 소요되고 있다.

“

각 관리자들에게 환경업무 목표관리항목에 포함시켜 철저하게 확인관리하고 있는 본사의 방침에 따라 향후엔 BOD, COD, SS 모두 10ppm 이하로 관리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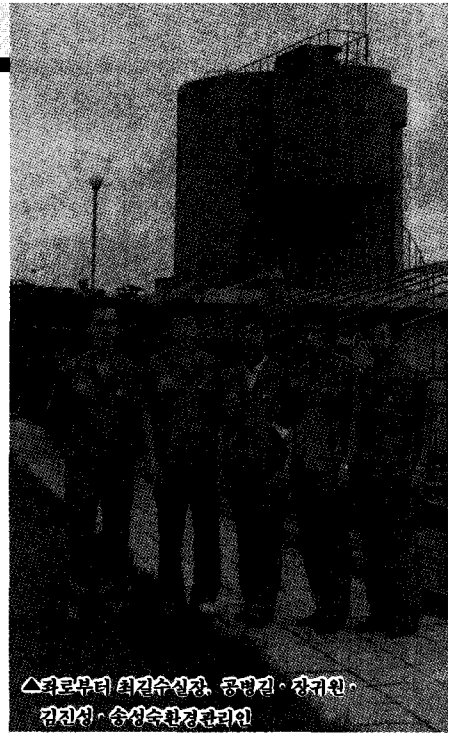
”

〈표〉처리전후의 수질상태

구분 항목	개선 전		개선 후		관리기준	
	유입수	처리수	유입수	처리수	법정	당사
P H	5.2-6.8	6.5-7.4	6.5-7.5	6.8-7.2	5.8-8.6	6.5-7.5
B O D (mg/ℓ)	2,200-200	120-80	400-450	7.2-14	150이하	15 이하
C O D (mg/ℓ)	70-65	25-30	40-55	8.5-15	〃	〃
S S (mg/ℓ)	60-50	20-25	30-40	1.5-3	〃	〃

※ 상기표에서 BOD 처리효율은 93.2%→97.5%로 상승됨

※ 유입수의 BOD부하가 개선전 200-2,200ppm→400-650ppm으로 폭이크게 감소됨



△좌로부터 최진수실장, 공병길·장규원·김진성·송성숙환경관리인

현장에서 만난 송성숙, 공병길 관리인 역시 회사측의 관심과 지원으로 처리에 어려움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처리장 외곽 담장에 설치한 소음벽을 가리키며, 얼마전 지역인사와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처리장 견학을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설명한다.

“

“각 관리자들에게 환경업무 목표관리항목에 포함시켜 철저하게 확인관리하고 있는 본사의 방침에 따라 향후엔 BOD, COD, SS 모두 10ppm이하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최실장이 덧붙인다.

오염물질발생의 근원적 조치와 방지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로 국민보건안전에 기여하는 공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이곳, 현장에서 애길 나눴던 관리인가족들의 웃음이 마냥 편해 보이던 까닭은 . . .